



II. 역사

1. 선사시대
2. 삼국시대
3. 통일신라시대
4. 고려시대
5. 조선시대
6. 근대
7. 현대

1. 선사시대

1) 구석기시대

파주의 역사는 임진강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임진강은 이곳의 선사시대인들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그랬기에 일찍부터 이곳에서는 강가의 양지바른 낮은 구릉지대에 움집을 짓고 살면서 식물의 열매를 채집하고, 석기를 이용하여 물고기와 짐승을 잡아 생활하는 구석기인들이 살고 있었다. 임진강변에는 이러한 구석기인들의 풍부한 삶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유적지가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 구석기 유적이다. 이와 더불어 파주 금파리 유적지와 파주 주월리의 육계토성 일대를 꼽을 수 있다.¹⁾ 주월리 유적에서는 찰개 · 몸돌 · 박편석기와 같은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구석기 유물은 인근 원당리와 가월리의 그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²⁾

특히 임진강 남안에 해당하는 파평면 금파리 일대는 4기 지질시대, 즉 중부홍적세에 철원 · 평강 지구에서 기원한 현무암이 臺地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곳에서는 대형의 石核 · 찰개 · 박편도끼 · 단면 주먹도끼 · 굽개 등과 같은 구석기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금파리 유적은 전곡리 유적보다는 다소 늦지만 前期 舊石器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³⁾ 이렇듯 임진강을 따라 도처에서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에서는 그밖에도 적성면 · 파평면 · 문산읍 등지에서도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었다.

2) 신석기시대

신석기사회는 농경생산을 통한 잉여농산물의 저장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신석기인들이 생활했던 삶의 흔적이 파주 지역에서는 대략 8군데서 확인되고 있다. 즉 적성면 주월리, 문산읍 선유리 · 독서동, 파주읍 백석리, 교하면 다율리 · 교하리, 월릉면 덕은리 · 옥석동, 조리면 봉일천리가 되겠다. 이곳에서는 빗살무늬토기와 집자리 등이 확인되었다. 파주 지역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한반도 중서부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丸底土器群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⁴⁾ 특히 주월리의 육계토성 일대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⁵⁾

임진강이 관류하고 있고, 한강과 접하고 있는 파주 일

1)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臨津江 流域의 軍事遺蹟 地表調査報告」, 『學藝誌』3, 1993, p 320

2)崔楨蕊, 「임진강 주월리 유적」, 『韓國上古史學報』23, 1996, p 266.

3)裴基同, 「坡州 金坡里 舊石器時代 野外住居遺蹟發掘調査略報」, 『제33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 요지』, 1990, pp 285~291.

4)韓永熙, 「신석기시대 - 지역적 비교」, 『한국사론』12 - 하, 1983, pp 496~506

5)李道學, 『倉洞通信』26號, 1992년 3월 1일. 崔楨蕊, 앞의 글, pp.257~266

대는 일찍부터 강변 어로 생활이 발달해 있었다. 이곳의 특산물로서 蟹(게)와 鯉魚(잉어) · 銀口魚 · 秀魚 · 細魚 · 葦魚 · 錦鱗魚 · 訥魚 등과 같은 물고기가 알려져 있다.⁶⁾

이는 신석기시대 이래의 강변 어로 생활과 무관하지 않은 물산으로 보겠다.

3) 청동기시대

파주 일대는 신석기시대 이래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문화 중심지였는데, 청동기시대에도 그러한 역할에는 예외가 되지 않았다. 파주 지역은 동북 지방의 무문토기 · 孔列文土器 · 丹塗磨研土器文化和 서북 지방의 팽이형토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 자체적인 혼합을 통해 발전하였고, 이어 한강 유역과 남부 지방으로 문화를 전파시켜 주는 중간 매개자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이해되고 있다.⁷⁾

이러한 파주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과 유물은 대략 다음과 같이 조사 · 확인되었다. 즉 적성면 식현리, 문산읍 선유리 · 가찰리 · 장산리 · 운천리 · 당동리 · 문산리 · 사목리, 파주읍 백석리, 탄현면 금승리, 월릉면 덕은리 · 옥석동 · 능산리 · 영태리 · 두문동, 금촌동, 아동동, 조리면 뇌조리 · 봉일천리, 교하면 교하리 · 상지석리 · 목동리 · 다울리가 되겠다. 이곳에서는 주거지와 지석묘를 중심으로 한 유적에서 공열문토기 · 반월형석도 · 방추차 · 마제석검 · 마제석부 · 무문토기 · 유구석부 · 숫돌 · 마제석촉 · 돌낫 · 단인편평석부 · 갈돌 · 흑

요석제품 · 石棒 · 敲石 등의 청동기시대 유물들이 출토되었다.⁸⁾

파주 지역의 청동기인들은 파주 지역을 동북에서 서남으로 가르며 흐르는 임진강을 따라 그 동남쪽 구릉지대에 거주하였다.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서남부 지역은 河岸平野가 펼쳐져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동북부 지역도 임진강과 이로 흘러드는 늘노천이 만들고 있는 谷底平野가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확인되는 파주의 곡저평야 지대에는 강의 범람으로 대부분이 砂壤土이며, 하천에 운반되어 온 양분을 많이 흡수하여 매우 비옥하다.⁹⁾ 이와 관련해 비록 곡물의 난알이 출토되지는 않았지만, 파주 지역의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수확도구인 반월형석도와 돌낫 · 갈돌, 경작도구인 마제석부 등과 같은 농기구들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파주 지역 청동기시대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石鏃의 수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한다. 특히 옥석동 주거지에서 출토된 석촉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한 특색을 지니고 있다.¹⁰⁾ 이로 미루어 여러 종류의 짐승들에 대한 사냥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수렵이 농경과 더불어 파주 지역 청동기인들의 食糧源 확보를 위한 주요한 생활 행태였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경의 보급에 따라 점증적으로 富의 집중과 독점이 이루어졌던 바, 옥석동과 교하리에서 대형 주거지와 지석묘가 축조될 수 있었던 경제적 배경이 헤아려진다. 덕은리와 교하리에서 확인된 각각 3.7×15.7m, 3×9.5m · 4.4×10m의 대형 주거지가 이를 뒷받침한다.¹¹⁾

물론 덕은리에서는 석기 공작 연모가 다수 출토되어

6) 『大東地志』권 3, 파주 · 교하 · 적성 조 · 토산 향

7) 이백규, 「경기도 무문토기 · 마제석기」, 『고고학』3, 1974, pp 53~129

윤무병, 「청동기 문화-토기」, 『한국사』1, 1970, pp 266~269

임병태, 「한국 무문토기의 연구」, 『한국사학』7, 1986, pp 79~118.

8) 파주군, 『파주군지』상, 1995, pp 156~157.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자유로 2단계 지역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1992, pp 17~20

9) 파주군사편찬위원회, 『파주군사』상, 1984, pp 32~38.

10) 김재원 · 윤무병, 『한국지석묘연구』, 1967, p.44.

11)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 1986, p 71

석기 제작 작업장으로 추정하기도 하지만,¹²⁾ 어쨌든 이 유적은 크고 완전한 형태의 움집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인데, 이 또한 전술한 경제적 배경에서의 해석이 적절하다 하겠다.

더욱이 交河 관할에 ‘支石’이라는 지명이 존재하였음은¹³⁾ 청동기시대의 상징인 지석묘 밀집지로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실제로 파주 지역 지석묘군은 강화도를 제외하고는 서울 인근에서 가장 대표적인 북방식 지석묘 유적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파주 덕은리 지석묘는 하부 구조에서 주거지가 발견·조사되어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함께 하는 중요 유적으로 평가되었다. 이 움집은 방사선 탄소연대측정 결과 B.C. 7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수치가 나타났다.¹⁴⁾

근래에는 한강과 임진강이 습수되는 지점인 파주 교하면 다율리와 당하리 등에서 지석묘와 주거지가 발굴·조사되었다. 이곳은 한강의 支流인 곡릉천이 흐르고 있고 낮은 구릉들과 평야가 발달해 있어 거주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 이곳의 지석묘는 기존에 발굴했던 파주의 여타 지역의 지석묘와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마제석검·석촉·석창·지석 등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그 인근에 소재한 당하리 주거지는 기존에 파주에서 확인된 주거지들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방형의 구조이다. 이곳은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밀집된 곳이므로 인구 조밀 지역임을 상정할 수 있는데, 국가의 기초를 다지던 세력의 성장지로서 주목을 요하고 있다.¹⁵⁾

4) 초기철기시대 - 마한의 1國으로서의 파주

파주 일원에서 확인되는 초기철기시대 유적은 적성면 주월리, 문산읍 선유리·독서동·상독서동·내포리·문산리, 월롱면 영태리, 조리면 뇌조리·조산동 등을 꼽을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의 이러한 유적에서 출토되는 대표적 토기는 粘土帶土器인데, 파주와 충청남도 지방을 남북 경계로 하는 한강 유역에 집중 분포한다.¹⁶⁾ 그리고 파주 주월리 유적에서는 부뚜막 시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부뚜막 시설은 철기문화의 전파와 더불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부뚜막은 출입구와 일직선상에 위치하는데, 강돌과 현무암을 세워 점토를 발라 벽을 만들고 연도 중앙에 강돌을 일렬로 세워 2등분하며 굴뚝은 움집 벽에 밀착되어 외부와 바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특히 부뚜막 시설을 갖춘 ‘ㅁ’자 형의 주거지 형태는 중부 지방의 독특한 양식으로 주목되고 있다.¹⁷⁾

그러면 점토대토기의 출토와 더불어 독특한 주거시설을 갖춘 파주 지역은 초기철기시대에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놓여 있었을까? 辰國이라는 거대한 연맹체 국가의 일원으로 자리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진국연맹체는 위만조선이 멸망한 후, 위만조선에서 남하하는 대규모 유이민 파동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삼한의 태동을 가져온다.¹⁸⁾

삼한은 마한과 진한 그리고 변한을 가리킨다. 마한의 영역은 지금의 경기도와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남·북도에 걸쳤다. 그리고 진한은 소백산맥이라는 지형구 안에서 대체로 낙동강 동쪽 지역을, 변한은 그 서부 지역을 영역으로 하였다. 이같은 3개 세력의 연맹체는 祭祀와 군사적 의무를 공유하고, 또 이것으로 결속되어 있는 일종의 戎祀 공동체였다.¹⁹⁾

12) 김재원·윤무병, 앞의 책, p 41

13) 『大東地志』권 3, 交河 坊面 條.

14) 김재원·윤무병, 앞의 책, p 48

15)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다율리 당하리 지석묘 및 주거지』, 1994, pp 13~64

16) 韓相仁, 「粘土帶土器 文化性格의 一考察」,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1, pp.45~55. 파주군, 앞의 책, pp 170~171

17) 김규상, 「파주 주월리 유적 발굴조사」, 『제22회 한국 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문』, 1998, p.168.

18) 李道學, 「새로운 摸索을 위한 點檢, 目支國研究의 現段階」, 『馬韓史研究』, 1998, pp.117~118.

19) 李道學, 『백제 고대국가 연구』, 1995, p 208.

이들 삼한 가운데 마한이 가장 거대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54개의 國 단위로 구성된 마한 연맹체의 맹주국은 지금의 충청남도 아산에 소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目支國이었다.²⁰⁾

목지국 辰王은 마한 뿐 아니라 멀리 진한과 변한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중국 군현과의 교섭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선상에서 볼 때 지금의 파주 지역에 마한의 일원으로서 나라가 존재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마한 54개 나라 가운데 어떤 이름의 나라가 파주 지역에 소재하였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물론 爰襄國과 桑外國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지만²¹⁾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파주 지역이 경기도 북부에 소재하였고, 마한과 중국 군현과의 교섭이 활발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였음이 분명하였다. 그러므로 낙랑군이나 대방군을 거점으로 하여 북쪽에서 남하하는

선진 문화의 중개지로서의 역할을 그려 볼 수 있다.

그런데 247년에 진한 8국 분할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진한 8국을 분할하여 낙랑군에 예속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마한의 신지(臣智)가 대방군을 공격하게 된 사건이다.²²⁾ 이 신지는 목지국 진왕으로 추정되는데, 그가 이끄는 마한연맹의 군대는 대방군 기리영을 습격하여 대방태수 궁준을 전사시켰을 정도로 격렬하게 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이 싸움의 결과 낙랑군과 대방군이 韓을 멸하였다고 하였듯이, 마한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그럼에 따라 기존 마한의 세력 판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즉 한강 유역을 기반으로 하나의 거대한 지역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던 백제가 급성장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이로써 목지국을 대신해 마한연맹의 새로운 맹주로서 백제가 등장하게 되었다.²³⁾

20) 李道學, 앞의 논문, p 121

21) 千寬宇, 『古朝鮮史 三韓史研究』, 1989, pp 416~417

22) 李道學, 앞의 책, p 136

23) 李道學, 『새로 쓰는 백제사』, 1997, pp 82~83

2. 삼국시대

1) 백제의 성장

파주 지역은 백제의 영향권에 포함되게 되었다. 백제를 맹주로 하는 마한연맹의 일원으로서 파주 지역의 城邑 중심의 國들도 보조를 맞췄으리라고 본다. 백제는 북방에서 남하해 오는 세력들과 부단히 전투를 치르면서 성장해 갔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말갈 군대가 엄습해 오자 온조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七重河에서 逆戰하여 말갈 추장 소모(素牟)를 생포하여 마한의 맹주에게 보내고 그 나머지는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²⁴⁾ 이 전투에 보이는 칠중하는 지금의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소재한 칠중성 부근을 흐르는 임진강을 가리킨다. 이로써도 파주 일대가 백제 초기사의 한 부분을 점하면서 그 영토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현장임을 읽을 수 있다. 사실 파주 일대는 평야가 넓고 북측으로 산맥이 뻗어가고 있어 방어에 유리할 뿐 아니라, 임진강과 한탄강은 食糧源인 동시에 천연 방어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는 파주 지역의 경제·군사적 비중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었다.

3세기 중반 이후 백제는 외적으로는 영역의 확대를, 내적으로는 중앙집권력의 강화를 착실히 추진해 갔다. 지금의 서울 지역에 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백제는 주변

의 몇 개의 國 단위들을 끌어당겨 몇 개의 豪族群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있었다. 동부에는 屹氏, 서부에는 인천의 彌鄒忽 세력, 북부에는 眞氏와 解氏 세력이 대표적이었다. 위례성이 소재한 서울의 북부 지역인 양주와 고양 지역은 진씨와 해씨의 세력권이었을 것이고, 그 북쪽에 접해 있는 파주 지역 또한 이들의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주월리 육계토성은 파주 지역에서 성장해 왔던 정치 세력의 실체와 성격을 함축해 주고 있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구석기~신석기~청동기~초기철기~백제로 이어지는 문화층을 지닌 육계토성을 주변경으로 한 정치 세력은 임진강과 한탄강 수계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그 인근인 연천 지역의 증석봉토분 조영 세력과 정치적 연계 관계를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월리에서 출토된 백제의 대형 옹관 중에는 肩部에 다이아몬드 형의 문양을 押印한 예가 있다. 이는 영산강 유역의 옹관묘와 연결되는 독특한 면으로서 앞으로의 해석이 기대려진다.²⁵⁾

백제 왕실의 王妃族이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조정 내의 왕권과 귀족권이라는 양대 세력 축의 한 쪽을 각각 지탱하고 있던 세력이 진씨와 해씨 집단이었다. 그 세력 권하에 파주 지역도 편입되면서 북쪽에서 침공해 오는

24) 『三國史記』권 23, 온조왕 18년 조.

25) 李道學, 앞의 논문, p 121

낙랑 · 대방군이나 말갈의 침공을 막으면서 마한이 아닌 백제 연맹체의 일원으로 성장해 갔다. 백제는 낙랑과는 6회, 말갈과는 26회의 전투를 치루었을 정도로²⁶⁾ 남하해 오는 북방세력과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였다.

백제가 이처럼 인접한 북방 세력과 잦은 충돌을 하게 된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낙랑의 입장에서는 농업 노동력의 확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고, 둘째 고구려 세력하에 있었던 말갈은 원산만 방면에서 철원 · 연천 · 파주에 이르는 추가령 구조곡을 따라 내려왔는데 영토적 관심보다는 경제적 약탈을 목적으로 침입해 왔던 것이다.²⁷⁾

이 때 백제의 주된 북방 방어선은 한반도 중앙부의 서쪽 평야 지대를 가로 지르는 임진강이었다. 임진강을 건너면 북쪽으로는 개성 일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남쪽으로는 지금의 서울 지역에 이를 수 있다. 그럴 정도로 임진강이 지니는 군사 · 지리적인 비중은 말할 나위없이 지대하였다.²⁸⁾ 따라서 이 강을 사이에 두고 渡河와 沮止라는 상반된 입장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치열하게 공방전을 전개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4세기 중반 이후 괄목할만한 정복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던 근초고왕이 등장하면서 고구려와의 치열한 전쟁으로 인해 파주 지역의 전략상 비중은 급증되었을 것이다. 즉 369년 백제 군대는 황해도 배천(堆壤)에서 남하해 오는 고구려 군대를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백제 군대는 371년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켰을 정도로 시종 對高句麗戰에서 우세를 유지하였다. 백제는 이 때 황해도 신계(水谷城)까지 북방 영토를 확장시켰다.²⁹⁾

그러나 375년 수곡성을 함락시킨 고구려는, 집요하게 백제의 北邊을 공격했다. 387년 고구려의 부용 집단인 말갈이 백제의 북변 요충지인 關彌嶺을 공격해 왔다. 377년에는 백제 근구수왕이 거느린 3만 군대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후 백제와 고구려는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는데, 전장은 파주를 비롯한 지금의 경기도 북방과 황해도 방면이었다. 진사왕대(385~392)의 전투 기록만을 보아도 다음과 같다.

- * 2년 8월 고구려가 침범하여 왔다.
- * 3년 9월 말갈과 관미령에서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 * 5년 9월 왕이 군사를 보내서 고구려의 남변을 침략하였다.
- * 6년 9월 왕이 달솔 진가모를 명하여 고구려를 쳐 도곤성을 함락시키고 2백인을 노획하였다.
- * 7년 4월 말갈이 북변의 적현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 * 8년 7월 고구려왕 담덕이 병사 4만을 거느리고 와서 북변을 쳐 석현 등 10여 성을 함락시켰다. 왕은 담덕이 용병에 능하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막지 못하니 한수 이북의 여러 부락이 많이 함락되었다.
- * 8년 10월 고구려가 관미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그런데 진사왕이 사망하는 해 7월에 백제는 석현 등 10여 성과 한수 이북의 여러 부락을 고구려에 잇따라 빼앗겨 북방의 많은 영토를 대거 상실하게 되었다. 백제를 궁지로 몰아 넣고 그 지배층을 일대 뒤흔들어 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그 해 10월에 발생하였다. 관미성 함락이었다. 바로 관미성은 ‘사면이 절벽’이고 ‘바닷물이 둘러진’ 백제가 자랑하는 난공불락 천연의 요새였다. 이 관미성의 위치는 정설이 없어, 강화도 혹은 강화도 북편의 교동도에 소재한 성으로 비정하거나 한강과 임진강이 합쳐지는 파주의 오두산성이나 예성강 중류 남쪽 기슭에 소재한 것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그밖에 조선 세종대에 축성 논의가 있었던 웅진반도 끝의 토성을 추가할 수 있다.³⁰⁾ 이 가운데 오두산성은 “임진강과 한강이 합쳐서 모

26) 申濤植,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1984, p. 286

27)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p. 321

28)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p. 320.

29) 李道學, 앞의 책, pp. 127~129

30) 李道學, 앞의 책, pp. 135~136

이는데 있는데 본래 백제 관미성으로 둘레가 2,072척이요, 사면 峭絶한데 오직 동쪽으로만 山麓과 연결되어 있으며 삼면은 바닷물이 에워싸고 있다”³¹⁾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확실히 주목할 가치가 없지는 않다.

그러한 관미성이 일곱 길로 나뉘어 20일에 걸친 고구려 군대의 집요한 공격을 받아 끝내 함락되고 말았다. 백제가 철벽처럼 믿었던 ‘북쪽 변경의 요새’인 관미성의 함락은 백제 지배층을 심대한 위기 속으로 몰고 갔다. 진사왕을 이은 아신왕도 관미성 함락을 통분해 하면서 좌장 진무의 지휘 하에 1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는 등 그 회복에 전력을 투구하였다. 이렇듯 관미성의 회복이 백제 왕권의 당면과제였음은 이 성이 지닌 정치적인 의미가 전략적인 비중 이상으로 지대했음을 뜻한다. 『광개토왕릉비문』에서 396년에 고구려가 점령한 백제의 성 가운데 파주 지역이 포함되고 있으므로³²⁾ 지금의 파주 일대의 상당 부분이 고구려의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백제와 고구려는 예성강과 임진강 유역에서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치열하게 벌였다. 특히 427년에 평양성으로 천도한 고구려는 남진 압박을 한층 강화하였다.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은 고구려를 괴롭히던 北燕이 멸망한 후 더욱 가속화되어 예성강 유역에서 30여 년을 끌었다.³³⁾ 475년 초겨울 고구려 군대는 백제의 수도인 漢城을 급습하여 백제 개로왕을 생포·처단하였다. 이때 고구려 군대의 공격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수군을 이용한 한 부대는 交河에서 파주 지역을 경유하여 지금의 서울 광나루 일대에 상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전란의 와중에서 백제의 국방상 요충지로서 파주 지역이 점하는 비중은 계속 증대되었을 것이다.

2) 고구려의 통치기

고구려는 475년 이후 지금의 서울 지역을 비롯하여 백제의 북방 영토를 장악하게 되었다. 파주를 포함하는 고구려는 파주 지역에 몇 개의 縣을 설치하였다. 지금의 파주시 금촌·교하·탄현면 일대를 泉井口縣으로, 파주시내와 문산읍 일대에는 述朱忽縣을, 장단면·군내면 일대에는 長淺城縣을, 파평면에는 波害平史縣을, 적성면에는 七重縣을 두었다.³⁴⁾ 모두 5개 현으로 그 만큼 파주 지역은 인구도 많았고 전략적인 비중이 컸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파주 주월리 유적에서 출토된 四耳廣口壺와 長胴壺같은 고구려 계통의 토기와 북방계 기마문화와 관련한 鐵鉞와 札甲은 주목을 요한다.³⁵⁾

고구려는 신라와 백제의 동맹군이 쳐들어 오는 551년까지 파주를 통치하다가 나제 동맹군에 의해 백제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백제는 76년만에 파주 지역을 탈환하였다.³⁶⁾ 그러나 불과 2년 후인 553년에 신라의 기습 공격을 받아 백제는 파주를 비롯한 6개 군이 설치된 한강 하류 지역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파주는 신라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3) 신라의 진출

신라는 553년에 한강 하류 지역의 6개 군을 점령함에 따라 한강 유역을 완전하게 장악하게 되었다. 고구려와 백제의 중간에 영토를 확보하고 있던 신라는 양국의 거센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파주 지역은 신라의 최북단이요 일선으로서 항시 戰雲이 감돌거나 전장이 되기 마련이었다. 603년에 고구려

31) 『大東地志』권 3, 交河 城池 條. 오두산성에 관한 발굴조사 성과로는 경희대 고고·미술사연구소, 『오두산성』 I, 1992가 있다.

32) 尹日寧, 『關溇城 位置考』, 『北岳史論』2, 1990, p. 115

33) 李道學, 앞의 책, p. 157

34) 『三國史記』권 35, 지리지 한주 조

35) 김규상, 앞의 글, pp. 168~169

36) 李道學, 『新羅의 北進經略에 관한 新考察』, 『慶州史學』6, 1987, p. 33

가 북한산성을 공격해 오자 진평왕은 직접 1만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 막기까지 했다. 638년 3월 칠중성(지금의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남쪽에서 큰 돌이 스스로 35步를 옮겨가는 일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7개월 후에 고구려가 칠중성을 공격해 오자 주민들이 놀라山谷으로 피신하였다. 선덕여왕은 대장군 알천을 파견하여 주민들을 安集시키고, 칠중성 바깥에서 고구려 군대와 전투를 벌여 크게 승리하였다.³⁷⁾ 660년에 고구려 군대가 칠중성을 공격해 오자 신라의 군주(軍主), 필부(匹夫)가 이를 막다가 전사하기까지 했다.

이와 관련해 임진강 유역인 연천군 장남면 원당3리에 소재한 瓢蘆古壘라는 성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성의 서쪽 벽은 임진강 北岸에 접하여 축조되어 있으며, 북쪽과 동쪽으로는 임진강의 지류가 휘감아 돌며, 천연의 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성은 대지와 잇대어 있는 남동쪽을 밀변으로 한 이등변 삼각형 형태로서 길이는 150m이고 밀변은 87m가 된다. 또 남동쪽의 성벽은 우뚝한데 반하여 나머지 두 면은 강변의 암벽을 이용하여 축조된 관계로 낮다. 성안은 2단으로 되어 있으며 편평하여 가용 면적은 넓은 편인데 엄청나게 많은 기와편들이 뒹굴고 있다. 고구려계의 붉은 사선무늬 붉은 기와편을 비롯하여 토기편·숫막새 기와편과 청자편·조석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건물이 꼭 차 있었음을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호로그루에 대한 기록은 『三國史記』에 보인다. 즉 662년 정월, 신라 장군 김유신은 평양성을 에워싸고 있는 당나라 군대에 군량을 보급하기 위하여 출발하였다. 2천여 대의 수레에 쌀 4천 석과 벼 2만 2천여 석을 싣고 떠났는데, 도중에 얼음이 미끄럽고 길이 험하여 수레가 가지 못하므로 군량을 모두 牛馬에 옮겨 실었다. 그해 정월 23일(양력 2월 16일) 신라 군대는 고구려와의 경계인 七重河에 이르렀는데 군사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먼저 배에 오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유신이 “그대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무엇하러 여기에 왔

는가”라고 꾸짖고는 자신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니 여러 장졸들이 서로 따라 물을 건너 고구려 땅에 들어 갔다. 그러나 곳은 비가 달포 넘어 계속 내리고 눈바람이 몹시 차서 사람과 말이 얼어 죽는 통에 가지고 간 군량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평양성의 당나라 군사들도 회군하고 싶던 차에 군량을 받고 곧 철군하자, 신라 군대도 양식이 떨어졌으므로 회군하게 되었다. 신라 군사들은 굶주리고 추워서 손발이 얼어 상하고 길바닥에 엎어져 죽은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신라 군대가 瓢河(瓢蘆河)에 이르자 뒤따라 추격해 온 고구려 군대가 강 언덕 위에 진을 쳤다. 신라 군사들은 피로에 지친 상황이었으나 급히 강을 건너 휴식을 취한 후, 고구려 군대가 채 강을 건너지 못하였을 때에 급습하여 1만여 명을 베고 장수 아달해(阿達兮)를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신라로서는 동맹인 당나라 군대에 군량을 조달하기 위하여 엄청난 출혈을 감내하였다. 내키지 않은 군량 조달은 처절한 느낌마저 주는데 기후가 몹시 차서 병사와 말들이 연신 길거리에 폭폭 쓰러졌다. 칠순을 바라 보는 노장군 김유신은 어깨를 벗어붙이고 말에 채찍질하여 앞으로 달려가니 젊은 사병들이 힘을 다하여 달려가며 땀을 흘리면서 감히 춥다고 말하지 못하였다. 바로 신라 군대가 악전고투하며 통과하였던 이 강이 칠중하요, 호로하였다.

칠중하는 칠중성 부근을 흐르는 하천이라고 하겠는데, 칠중성은 지금의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重城山에 소재한다. 그러므로 칠중하는 칠중성 좌편을 통과하는 임진강 구역이라고 하겠다. 하천을 구역에 따라 달리 불렀던 사례는 『三國史記』 문무왕 13년 9월 조에서 “당나라 군대가 말갈과 거란 군대와 함께 와서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무릇 아홉번 싸워서 우리 군대가 모두 이겨 2천 여명의 머리를 베었고 당나라 군대로서 호로·王逢 두 하천에 빠져 죽은 자가 이루 셀 수 없었다”라고 한 기사에 보인다. 즉 ‘왕봉’은 왕봉현인 지금의 경기도 고양군

37) 『三國史記』권 5, 선덕여왕 7년 조

일대를 가리키므로, 王逢河는 고양군을 통과하는 한강 하구를 뜻한다. 그러면 왕봉하와 더불어 당나라 군대가 궤멸된 호로하의 위치는 어디일까?

호로하의 위치는 瓠蘆城의 소재지를 파악할 때 드러나게 된다. 호로성은 『大東地志』에 의하면

瓠蘆古壘：(장단현) 동쪽 32리에 소재하였다. 瓠蘆灘 위의 積城 경계에 2개의 보루가 강을 격하여 상대하고 있는데, 석벽으로 되어 있으며 견고하다. 삼국시대에 포로하변에 축조한 것이다(장단현 성지조).

라고 하여 ‘포로고루’로 적혀 있다. 2개의 보루가 임진강을 격하여 마주 보고 있는 곳은 연천군 장남면과 그 건너 장좌리의 성곽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장남면의 성곽이 호로성이고, 이 구간의 임진강이 호로하인 것이다. 또 호로성은 여울 위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나무를 방비하는 목적을 지녔다고 하겠다.³⁸⁾

이렇듯 파주와 그 주변을 둘러싼 임진강 유역에서는 신라와 고구려 군대간의 공방전이 치열하였고, 병력과 軍資가 총집결되는 전면전의 양상을 띠었다. 이와 관련 해 파주 관내 임진강 유역의 대표적인 삼국시대 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소재하는 둘레 1.2km의 오두산성은 임진강이 한강과 만나는 지점에 소재하고 있다. 이 성은 한강이나 임진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해당되는 지점으로, 임진강을 渡河하는 적군을 막기 위한 측면보다는 해상으로부터 들어오는 세력을 막기 위해 축조된 방비 시설로 추정된다.³⁹⁾ 즉 바다를 통한 대규모 船團의 한강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가 지금의 서울 지역에 도읍하고 있던 시점에서는 도성의 운명을 가름하는 막중한

要鎮이었음을 함축해 준다.

그리고 임진강이 북으로 돌아 초평도를 끼고 서쪽으로 흐르는 임진강 가의 북쪽인 지금의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에는 덕진산성이 소재하였다. 민통선 내에 소재한 이 성에서 임진강을 바로 보았을 때 우측에는 수내나루와 저포가 있고, 좌측에는 초평도를 거쳐서 강을 건너는 덕진나루가 있다. 이 성은 임진강 남쪽을 광범위하게 조망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었다. 그와 더불어 덕진산성에서는 고구려 계통의 기와가 출토되고 있어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성으로 볼 수 있다.⁴⁰⁾

또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의 중성산에는 2층의 석축성인 칠중성이 소재하고 있다. 이곳은 적성-전곡리의 경계로부터 북서쪽의 고랑포까지 임진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요충지이다. 그 주변에는 가월리 토성(적성면 가월리)·범바위 토성(적성면 두지리)과 같은 삼국시대 관방 유적이 포진하고 있다.⁴¹⁾ 칠중성은 兎山→黃鷄峙→白峙→古美城→임진강 戊灘→칠중성으로 이어지는 교통로상에 소재하고 있다.⁴²⁾ “신라나 고구려가 用兵할 때에 모두 이 길을 거쳤다”⁴³⁾고 한 고대 교통로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시 적성면 주월리의 임진강 灣曲部에는 六溪土城이 소재하고 있다. 임진강 남안의 돌출부를 이용하여 축조된 육계토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다. 강변쪽으로 내성이 편향되어 위치하고 있고, 이를 동쪽과 남쪽으로 외성이 넓게 둘러싸고 있다. 육계토성 주변은 개성과 철원 혹은 지금의 서울을 이어주는 통로로서 중요한 위치였다. 가령 1217년(고종 4) 1월에 거란의 遺種이 방비가 강화된 개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 동북방의 牛峰縣을 공격한 다음 장단을 거쳐 개여울을 건너서 육계토성과 적성을 경유 5월에는 철원을 점령한데서 알 수 있다. 또 육계토성이 소재한 곳의 지명이 舟月里인데서 알

38) 李道學, 「임진강의 봄 호로고루에서」, 『꿈이 담긴 한국 고대사 노트』 하, 1996, pp 234~237

39)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p.326.

40)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pp 328~331

41) 洪再善, 「積城 七重城 調査略報」, 『佛教美術』7, 1983, pp 13~31

42) 尹日寧, 앞의 논문, p 134.

43) 『大東地志』권 2, 개성부 백치진 조

수 있듯이, 고구려의 왕들이 달을 벗삼아 뱃놀이를 즐겼던 풍광이 수려한 곳이었다.⁴⁴⁾

그리고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의 임진강 초평도 남안의 임진 나루터에는 臨津鎭이 설치되었다. 임진진은 長山鎭과 더불어 파주와 장단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상의 要鎭이다.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 소재한 장산진은 장산 나루를 관장하는 要鎭이었다. 이러한 鎭들은 임진왜란시 축조된 것으로 기록에 보이지만⁴⁵⁾ 그 전략적 비중을 볼 때 삼국시대에 이미 鎭堡가 설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밖에 성 안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파주군 적성면 적암리에 소재한 阿未城과 水鐵城도 모두 삼국시대에 축조된 성으로 밝혀졌다.

전략적 요충지인 오두산성 인근 탄현면 성동리에서는 석실분 4기와 석곽묘 5기가 조사되었다. 모두 7세기 전반을 중심 연대로 하고 8세기까지 축조된 신라 고분군으로 밝혀졌다. 석실분에 부장된 出字形 금동관은 신라계 금동관 중에는 가장 북쪽에서 출토된 것이다.⁴⁶⁾

이로 볼 때 임진강을 경계로 신라와 고구려가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하였지만, 여전히 파주 지역은 신라 영역으로 온존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 감악산비의 존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해발 675m의 감악산 정상에는 기단부와 개석까지 갖춘 화강암으로 된 높이 170cm의 석비가 우뚝 서 있다. '감악산비'라고 불리지만 字痕만 확인 될 뿐 白碑에 가깝기 때문에 '沒字碑'로, 현지에서는 '빚돌대왕비'로도 口傳되고 있다. 빚돌대왕비는 碑石大王碑를 뜻한다. 이같은 호칭은 비석 자체가 숭배 대상이었기 때문에 나왔을 것이다. 감악산비에 관해서는 당장(唐將) 설인귀(薛仁貴)의 사적비로 기록에 보이기도 하지만 설인귀 사당으로 구전되고 있는 그 곁의 사당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 비석은 외형 및 규모가 북한산 진흥왕순수비와 유사하다는 점과 철원의 孤石亭에 신라 '眞率王'의 비석이 있었다는 기록과 관련지어 볼 때 7세기의 신라

비석일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553년 이후 7세기 초엽 신라의 북쪽 경계를 임진강으로 비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관련하여 표지적인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는 장소로서 감악산 정상은 적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감악산비가 진흥왕순수비의 하나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충분히 주목할만한 견해라고 하겠다. 그러나 진평왕의 來遊地로 지금의 경상도 땅에 전하는 곳만 23개소나 있었는데 점을 생각할 때 풍광이 수려한 고석정의 '眞率王' 비도 '眞平王' 비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는 다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즉 603년(진평왕 25)에 진평왕은 몸소 군대를 이끌고 북한산성을 공격한 고구려군을 물리쳤다. 이 때 진평왕은 임진강을 경계로 한 방위선을 획정한 후 그 北界區劃의 기념물로 감악산비를 건립하지 않았을까 한다. 진평왕의 북한산성 출정은 54년이라는 장구한 재위 기간 동안 유일한 親征이었고, 또 뜻 깊은 戰勝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 세워질 수 있는 개연성은 크기 때문이다.⁴⁷⁾

4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pp 339~343.

45)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pp 348~351

46) 경희대학교 고고 미술사연구소, 『통일동산 및 자유로 개발지구 발굴조사 보고서(본문)』, 1992, p 405, p 286

47) 李道學,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 『楊州郡誌』上卷, 1992, pp 122~124

3. 통일신라시대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왕권이 강화되고 삼국간의 이질감이 어느 정도 해소 되는 시점에서 대대적인 행정 구역 개편을 시도하였다. 685년(신문왕 5)에는 9州 5小京制度가 완성되었다. 전국을 크게 9개의 주로 나누었는데, 여기서 주는 지금으로 말하면1道에 해당되는 행정구역이었다. 주 밑에는 전국에 117개 내지 120개의 군과 293개 내지 305개의 현이 있었다. 주의 장관은 都督이었고, 군의 장관은 太守였고, 현의 장관은 縣令 혹은 少守라고 하였다. 그리고 小京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가 한반도의 동남부에 편재되어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한 특수 행정 거점이 되겠다.⁴⁸⁾

파주는 9州 가운데 漢山州(漢州)에 속하였는데, 한주의 治所는 지금의 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성과 교산동 토성 일대로 지정된다.⁴⁹⁾ 아울러 757년(경덕왕 16)에 주·군현의 명칭을 漢式으로 고쳤다. 그럼에 따라 파주 지역의 행정 구역이었던 泉井口縣은 交河郡으로, 述舍忽縣은 峰城縣으로, 長淺城縣은 長湍縣으로, 波害平

史縣은 波平縣으로, 七重縣은 重城縣으로 각각 그 명칭이 바뀌었다.⁵⁰⁾ 여기서 파평현과 칠중현은 來蘇郡에, 봉성현은 交河郡에, 장단현은 牛峰郡에 각각 속하게 되었다.⁵¹⁾ 또 천정구현이 교하군으로 승격된 것은 임진강과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지역의 전략적 비중을 감안한 결과라고 하겠다.⁵²⁾

고구려와 백제를 아우른 통일신라는 국가 鎮護와 민족 융합을 위해 목적으로 제사체계에도 비상하게 신경을 쏟았다. 통일신라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소재한 名山大川에 그 格을 매겨 제사를 지냈다. 파주의 경우도에 해당되고 있다. 적성면 객현리에 소재한 감악산이 그것이다. 감악산에는 小祀가 배정되었다.⁵³⁾ 그 배정 시기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독점하게 되는 553년 이후라고 하겠다.⁵⁴⁾ 이러한 감악산의 비중은 이 산이 소재한 임진강 유역을 둘러싼 전략적 중요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감악산에는 사당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다음의 기록이 주목된다.

48) 李道學, 앞의 글, p.120

49) 李道學, 「漢城 後期の 百濟 王權과 支配體制의 整備」, 『百濟論叢』2, 1990, p 217에서 이성산성의 기능을 新州의 治所로 파악하였다. 그러한 기능이 한주의 치소 기능으로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겠다.

50) 『三國史記』권 35, 지리지 한주 조

『三國史記』정덕본에는 波害平史縣과 波平縣의 앞 글자는 ‘坡’가 아닌 ‘波’로 기재하였으므로 이에 따랐다 『新增東國輿地勝覽』 파주목 건치연혁 조에도 ‘波’로 기재된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쨌든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로는 ‘坡’로 기재하는 것이 通例가 되었다

51) 『世宗實錄』지리지, 파평 칠중 봉성 장단현 조

52) 한편 『大東地志』의 기록에 따라 칠중성을 娘臂城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娘臂城은 臂城郡과 연결될 소지가 크다. 비성군은 馬忽이라고 하였는데 (『三國史記』권 37, 지리지 고구려 한산주 조), 마을은 지금의 경기도 포천이므로 이와 연관지어 비정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한다

53) 『三國史記』권 32, 제사지

54) 李道學, 앞의 글, p 120

감악은 신라 때부터 小祀를 지내는 곳으로 삼았다. 산 위에 사당이 있어 봄·가을로 香과 祝文을 내려 제사를 지낸다. 현종 2년에 거란병이 장단악에 이르매 神祠에 旌旗와 士馬가 있는 것 같아 거란병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에(사당의) 수리를 명하여 神祠에 보답하였다. 민간에 전하는 말로 신라 사람이 당의 장수 설인귀를 제사하여 산신으로 삼았다고 한다.⁵⁵⁾

여기서 감악산의 산신이 설인귀라고 하는 것은 그 밖의 문헌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기록이다. 물론 처음부터 감악산의 산신이 신라 통일기의 당나라 장군인 설인귀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어떤 까닭이 있었으리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통일신라가 발해의 위협을 크게 느끼고 있었던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사실 신라가 그 북쪽 경계선을 대체로 대동강과 원산만으로 국한시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당나라 보다는 발해의 압력 때문이었다. 신라는 721년(성덕왕 20)에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 일원을 중심으로 長城을 축조하였는데, 이 역시 발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요컨대 발해 건국 후 점차 그 세력이 신라의 북변에까지 미치게 되자, 신라는 예성강 유역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꾀하였다. 신라는 748년(경덕왕 7) 예성강 연안 일대에 4개 郡縣을 설치하고, 다시 그 14년 후 북쪽 지방에 6개 군현을 증설하였다. 그리고 헌덕왕대에 재차 북방에 진출하여 取城郡(황주) 및 그 領縣 3개를 신설하여 대동강 남안까지 영토를 확대했던 것이다.⁵⁶⁾ 826년(헌덕왕 18)에는

우장태수(牛岑太守) 백영(白永)에게 명하여 漢山 북쪽의 여러 州郡人 1만 명을 징발하여 溟江長城을 3백리에 축조하게 하였다(『三國史記』권 10, 헌덕왕 18년 7월 조).

라고 하여 3백리에 걸친 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같은 신라의 북방 영토 확대와 그 시책은 발해를 크게 자극하

여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켰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은 결국 733년(성덕왕 32)에 신라 군대가 발해의 남쪽 변경을 공격하는⁵⁷⁾ 군사적 충돌로까지 번져나갔던 것이다.

이같은 당시의 정황을 놓고 볼 때 신라의 祭儀 산악 가운데 北邊防禦의 임무를 짊어지고 있었을 감악산이 지닌 鎮護的 의미는 각별하였다. 아마도 이 무렵 신라인들은 고구려를 승계한 강대한 발해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관념에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 장군 설인귀를 감악산신으로 받들어 陰助를 입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요컨대 異國 人物을 제사지내는 감악산의 설인귀 사당은 신라와 발해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군사적 위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한 것으로 보겠다.⁵⁸⁾

파주 지역 주민들의 흔적은 임진강 하구 유역인 탄현면 법흥리 고분군을 통해 그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즉 토기와 帶金具 일체가 부장되어 있는 7세기말~8세기 전반에 조성된 석곽묘들이 그것이다.⁵⁹⁾

55) 『高麗史』권 56, 지리지 적성 조.

56) 李道學,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 『楊州郡誌』上卷, 1992, p. 122

57) 『三國史記』권 8, 성덕왕 32년 조

58) 李道學, 앞의 글, pp. 120~122

59)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자유로 2단계 개설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993, pp. 146~148, pp. 328~332

4. 고려시대

고려는 936년(태조 19)에 후삼국을 통일하고 940년에 州·府·郡을 개편하고 그 이름들을 고쳤다. 이때 파주 지역이 속한 州는 廣州였는데, 그 관하의 증성현은 적성현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983년(성종 2)에는 전국에 12牧이 설치되어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995년에는 장단·적성·파평 등이畿縣에 속해 開城府의 관할하에 들어 갔다. 현종 초기에는 10道가 5道로 바뀌면서 파주 지역은 楊廣道에 속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1018년(현종 9)에는 중앙집권적인 지방지배가 실효를 거두어 전국을 4대도호부·8목·56주군·28진·20현령체제로 개편하였다. 그럼으로써 장단현령이 松林·臨津·兎山·臨江·積城·坡平·麻田의 7현을 관할하면서 직접 尙書都省에 속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정 구간을 京畿라고 불렀다. 그리고 장단현에 속하지 않은 봉성현과 교하군은 양주에 소속되었다.

이후 湍州로 승격되었던 장단현이 다시금 현으로 강등되었다가 1062년(문종 16)에 개성부에 소속되었다. 1063년(문종 17)에는 파평현·적성현·봉성현이 개성부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1106년(예종 1)에는 縣令이 파견되지 않은 파평현과 적성현에 流民 방지를 목적으로 감무를 설치했다.

1174년(명종 4)에는 장단 지역에 궁궐조성관을 두어

새로운 궁궐을 지을 준비를 시작하였고, 봉성현을 서원현으로 바꾸어 감무를 파견하였다. 장단현의 白岳에서 궁궐 조성 役事를 한 후 1217년(고종 4)에 완성되었다. 1390년(공양왕 2)에는 田地改量과 관련하여 경기도를 좌·우도로 나누었다.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현을 左道로 하였으며, 경기도의 확대에 따라 양평도에 속했던 交河·瑞原縣은 경기도에 이속되었다.⁶⁰⁾

파주는 임진강과 한강이 交會하는 곳이 되어 경관이 수려하다. 게다가 당시 수도였던 개성에서 가깝다. 이런 이유로 일찍부터 詩文을 읊조리는 장소로서 즐겨 이용되고는 하였다. 가령 문종이 峰城縣에 행차하여 重陽節 연회를 베풀고 兩府 및 侍臣들에게 詩를 짓게⁶¹⁾ 한 것이 단적인 경우이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살아서는 長湍이요 죽어서는 坡州”라고 하는 말이 있다. 경관이 수려한 곳이 장단이요, 고려조의 윤관(尹瓘)을 비롯하여 조선조의 황희(黃喜)나 이이(李珥)같은 名人들의 산소가 준비한 곳이 파주이기 때문일 것이다.

파주는 고려의 7대 왕인 목종(998~1009)과도 인연을 지니고 있다. 목종이 장단에 이르러 侍中 한언공(韓彦恭, 940~1004)에게 이르기를 “이 고을은 卿의 本貫

60) 이상의 고려시대 행정지명과 그 구역 변천은 역대 지리지와 파주 군지를 참조했다.

61) 『高麗史』권 9, 문종 36년조, 『高麗史節要』권 5, 문종 36년조

이니 卿의 공로를 생각하여 湍州로 승격시킨다”⁶²⁾고 하였다. 한언공은 宋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는데 많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한 목종은 강조에게 시해된 후 적성현 남쪽에서 火葬되고는 무덤이 조성되었는데 恭陵이라 하였다.⁶³⁾

또 파주의 감악산은 護國山岳으로서의 든든한 믿음을 지니게 하였다. 가령 1011년(현종 2)에 거란 군대가 장단에 이르자 눈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감악의 神祠에 깃발과 軍馬가 있는 것처럼 보여 거란 군대가 두려워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다.⁶⁴⁾ 1258년(고종 45)에 몽골의 차라대가 군대를 이끌고 개성에 진을 치고는 交河와 峰城 일대에 난입하여 주민들을 약탈하고 양과 말을 놓아 먹였다.⁶⁵⁾ 그러했을 정도로 몽골의 침입을 받아 파주 일대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럴수록 감악산에 대한 신앙은 커 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신앙은 조선조까지 이어졌는데, 세종이 장단 나루에 이르렀을 때 감악산에 제사 지내게 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⁶⁶⁾

그리고 임진강에는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루가 있는데 그 중에서 臨津은 파주→장단→개성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교통로였다. 1361년(공민왕 10)에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임진을 건너 이곳의 兜率院에 머물다가 안동으로 몽진한 적이 있다.⁶⁷⁾

그러면 파주 지역 호족세력의 변천 과정은 어떠했을까? 통일신라말에는 중앙권력의 약화에 편승하여 각지에서 호족들이 활거하였다. 이러한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후삼국이 생겨나게 되었다. 파주 지역은 후삼국 가운데 처음에는 궁예의 세력권이었다가 그를 계승한 왕건의 고려 판도에 들게 되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파주 관내에는 瑞原(峰城)의 廉氏·徐氏, 坡平의 尹

氏·智氏, 交河의 盧氏·金氏·李氏·玉氏·朴氏, 심악의 이씨·박씨, 석천의 廉氏·車氏, 臨津의 金氏, 積城의 申氏·金氏·崔氏, 長湍의 韓氏와 같은 유력한 土姓들이 확인되고 있다.⁶⁸⁾

파주 지역의 호족 세력 가운데 고려 건국 초기에 삼한 벽공신이 되었던 廉炯明(廉炯明)을 비롯한 廉상·廉경(廉湘·廉卿) 등과 같은 서원 廉씨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 그리고 장단 한씨는 왕건의 어머니인 위숙왕후(威肅王后)를 비롯하여 법경대사 비음기에 보이는 한주 봉·한헌윤·한평(韓柱逢·韓憲潤·韓平), 예종대의 한안인(韓安仁) 등 무수한 권력가를 배출했다. 파평 윤씨는 태조 왕건의 개국과 통일을 도운 삼한공신인 莘達을 시조로 하고 있는데 尹瓘이 현달함에 따라 가문의 격이 크게 높아졌다.⁶⁹⁾ 윤관에 대해서는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將相이 됨에 이르러 비록 軍中에 있으면서도 항상 五經을 지니고 다녔다. 어진 이를 좋아하고 착한 것을 즐겨함이 일시에 으뜸이었다”⁷⁰⁾는 評이 남겨지고 있다. 이러한 권문 세족들은 고려 전기에 문벌귀족으로 성장하였고, 무신 집권기에는 임진 김씨가, 몽고 압제기에는 서원 廉씨와 교하 노씨가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볼 때 고려시대의 정치사에 파주 지역이 배출한 인맥의 영향이 실로 중차대하였음을 생각하게 한다.

고려말에는 신홍사대부를 배출한 곳이 파주 지역이었다. 파주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과 근접한 까닭에 운천리 동산에 쌍매당 이침, 적성면 구연의 양촌 권근, 파평면 울곡리의 야은 길재의 家宅이 있었던⁷¹⁾데서 짐작되듯이 그 영향으로 저명한 신홍 사대부를 배출하였다. 가령 尹坤·尹虎·宋居臣·李稷·許稠·朴崑·黃喜 등을 꼽

62) 『高麗史節要』권 2, 목종 3년 조

63) 『高麗史節要』권 2, 목종 11년 조.

64) 『高麗史節要』권 3, 현종 2년 조.

65) 『高麗史節要』권 17, 고종 45년 조.

66) 『世宗實錄』3년 10월 12일

67) 『高麗史』권 39, 공민왕 10년 11월 조.

68) 『世宗實錄』지리지, 원평도호부 교하현 적성현 성씨 조.

69) 파주군, 앞의 책, pp.192~193

70) 『高麗史節要』권 7, 예종 6년 조.

71) 파주군사편찬위원회, 『坡州郡史』상, 1984, pp.511~512

을 수 있다.⁷²⁾

법흥리 고분군에서는 宋나라 때의 嘉祐元寶와 崇寧重寶를 비롯한 宋錢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⁷³⁾ 이러한 宋錢은 비록 世傳되어 조선시대 민묘에 매납되었지만, 고려시대의 파주 지역과 宋人들과의 교섭을 시사해 주는 물증이다. 특히 임진강 하구인 법흥리 일대가 宋商들의 來往이 잦은 교통로였다는 사실과 더불어, 交易을 통한 이 지역 권문세족의 성장을 가능하게 해준 배경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72) 파주군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p 323~361.

73)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p.150.

5.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파주 지역은 행정 구역의 개편이 있었다. 1393년(태조 2)에 瑞原縣이 郡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나 1394년에는 교하군이 현으로 강등되어 한양에 소속되어 감무를 두었다. 그리고 도평의사사에서 경기도 고을의 성쇠와 넓고 좁은 것에 따라 左·右道로 고치자는 요청에 따라 長湍·坡平·積城·臨江·交河를 경기 좌도에 소속시켰다.⁷⁴⁾ 1398년에는 파평현과 서원현을 합하여 原平郡을 만들었다. 1413년(태종 13)에는 적성현의 지위가 높아져서 처음으로 縣監이 두어졌다. 이때 교하현이 원평군에 소속되었고, 교하현 소속의 심악은 高陽縣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단현을 임강현과 합쳐서 長臨縣으로 하였다.⁷⁵⁾ 그러나 장단현으로 바뀌었으나 규모가 작은 관계로 임진현과 합해서 臨湍縣으로 개편되었다가 다시금 임강현을 두었다.⁷⁶⁾ 그 후 다시금 장단현으로 복구되었다.⁷⁷⁾

1415년에는 원평군이 원평도호부로 승격되었으나 교하현이 독립해 나가자 군으로 강등되었다가 도호부로

복귀되었다. 1456년(세조 2)에는 臨津과 長湍·臨江을 합하여 한 개 縣으로 만들었고 임진을 治所로 하였다.⁷⁸⁾ 1458년에는 장단현이 임진현과 임강현을 합쳐서 民戶가 1,022戶에 이르자 승격시켜 郡을 삼았고,⁷⁹⁾ 1459년(세조 5)에 원평도호부는 세조의 왕비인 정희왕후 윤씨(貞喜王后 尹氏)의 內鄉이라 하여 坡州牧을 삼았다.⁸⁰⁾ 이같은 파주 관내의 행정 구역 개편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지만, 15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대략 파주목·장단도호부·교하군·적성현으로 골격을 잡게 되었다.

파주 지역에서 臨津은 한양을 수도로 정한 조선왕조 시기에 북방과 수도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길목이었다. 그랬기에 태조는 임진 수미포에 거둥하여 관삼사사 정도전에 명하여 五軍陣圖를 연습하게 하고는 친히 관람하기까지 했다.⁸¹⁾ 그리고 임진은 명나라 사신이 왕래하는 外交路이자⁸²⁾ 조선군의 北征時에는 軍事路로서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이 고려되었기에 임진현의 德津과 장단 나루는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는

74) 『太祖實錄』 3년 6월 23일

75) 『太宗實錄』 14년 8월 21일.

76) 『太宗實錄』 14년 12월 3일.

77) 『世宗實錄』 1년 3월 5일

78) 『世祖實錄』 2년 7월 4일.

79) 『世祖實錄』 5년 8월 18일

80) 『世祖實錄』 5년 10월 2일.

81) 『太祖實錄』 3년 3월 11일

82) 대표적인 경우가 『成宗實錄』 19년 3월 12일 조에 보인다

대상이 되었다.⁸³⁾ 1413년(태종 13)에는 태종이 臨津渡에서 거북선(龜船)과 倭船이 서로 싸우는 모의 훈련을 참관한⁸⁴⁾ 적이 있을 정도로 임진강은 중요한 군사 구역이기도 하였다. 1415년(태종 15)에는 전국의 津渡別監을 종9품의 渡丞으로 승격시킨 예에 따라 이곳에 臨津渡丞을 임명하여 선박을 비롯한 제반 시설을 관장하게 하였다.

또 파주는 수도인 한양에서 멀지 않은 관계로 陵墓가 조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장순왕후(章順王后, 추존, 제8대 예종의 元妃)를 지금의 파주 조리면 관할인 普施洞에 조영한 것이⁸⁵⁾ 恭陵이다. 그리고 恭惠王后(제9대 성종의 元妃)를 恭陵의 동쪽 언덕에 장사지냈는데⁸⁶⁾ 順陵이 된다. 그밖에 진종(眞宗, 추존, 영조의 장자인 효장세자)과 그 비인 효순왕후(孝純王后, 추존, 효장세자빈)의 능묘인 永陵이 같은 면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陵은 모두 지금의 조리면 봉일천리에 소재하였다. 그리고 인조(仁祖)와 그 비인 인렬왕후(仁烈王后)의 능묘인 長陵이 탄현면 갈현리에 소재하고 있다.

黃喜와 李珣를 비롯한 사대부들의 묘소도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파주 지역의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가 범흥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白瓷象嵌魚蓮文瓶의 존재이다. 이는 상당한 수준의 작품으로서 지금까지의 조선초기 민묘에서 출토된 예가 없는 도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⁸⁷⁾ 그리고 성동리 토광묘는 조선 전기~중기의 분묘군으로서 당시대의 이 지역의 富力과 생활상을 보여 준다.⁸⁸⁾

그리고 군왕들이 파주 지역에 행차한 예가 적지 않은데, 세종과 세조를 비롯하여 성종 등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⁸⁹⁾ 게다가 연산군은 임진강가의 돌출된 석벽 위에

별관을 지어 遊幸하는 장소를 만들었다. 굽이진 院과 빙두른 房이 강물을 내려다 보아 지극히 사치스러울 뿐 아니라 교묘하기 이룰데 없었다.⁹⁰⁾ 江을 끼고 있어 풍광이 수려한 관계로 遊娛의 장소로서 이용되었던 것이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임진강을 건너 북으로 몽진하였다. 이때의 상황을 『선조실록』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저녁에 임진강 나루에 달아 배에 올랐다. 상이 侍臣들을 보고 엎드려 통곡하니 좌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였다. 밤은 칠월 같이 어두웠지만 한 개의 燈燭도 없었다. 밤이 깊은 연후에야 겨우 東坡까지 달았다. 상이 배를 가라앉히고 나루를 끊고 가까운 곳의 人家도 철거시키도록 명했다. 이는 적병이 그것을 뗏목으로 이용할 것을 염려한 때문이었다. 백관들은 굶주리고 지쳐 村家에 흩어져 있는데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반이 넘었다”⁹¹⁾ 선조는 왜군이 뗏목을 만들어 渡江하지 못하게끔 임진도의 남쪽에 있는 丞廳 건물을 헐어서 불태워 버렸다. 대신 조선군은 임진강을 방어선으로 하여 왜군을 막았으나 방어선은 금새 붕괴되고 말았다. 영의정 유성룡의 건의로 파주의 鎭山인 봉서산에 축조된 산성으로 防營을 삼았고, 권율이 이 산성을 지켜 왜군을 막았던 것이다.⁹²⁾ 또 明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파주 礪嶼에서 왜군에게 大敗하기도 하였다.⁹³⁾

임진왜란 후 臨津渡는 복구되었다. 1703년(숙종 29)에 문신인 渡丞을 무신인 별장(종9품)으로 대체하고 병력과 물자를 보충하였다. 1755년(영조 31)에는 臨津渡를 臨津鎭으로 개편하여 중앙의 5군영의 하나인 충융청에 소속시켰다. 이와 더불어 성을 축조하고 문루를 설치하는 동시에 鎭舍 등 제반 시설을 크게 확충하게 했

83) 『太祖實錄』 5년 4월 17일 『世宗實錄』 2년 2월 20일.

84) 『태종실록』 태종 13년 2월 5일

85) 『世宗實錄』 8년 2월 21일.

86) 『成宗實錄』 5년 6월 7일.

87)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앞의 책, p 336.

88) 경희대학교 고고 미술사연구소, 앞의 책, pp.334~411

89) 『世宗實錄』 3년 10월 12일. 『世祖實錄』 6년 10월 5일, 8년 1월 4일. 『成宗實錄』 5년 6월 7일. 성종은 파주 廣灘 波吾達에서 머물렀었다.

90) 『燕山君日記』 12년 9월 2일.

91) 『宣祖實錄』 25년 4월 30일.

92)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pp 349~350.

93) 『燃藜室記述』 권 16, 宣祖 朝 고사본말.

다. 1772년(영조 48)에는 中營을 설치했다가 1773년에는 충융청 소속으로 환원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치른 후에 임진진에 대한 교통 및 군사적 비중이 한층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갑오경장으로 전국의 兵營과 水營이 혁파되었을 때 임진진도 廢鎭되었다.⁹⁴⁾

17세기 초엽인 광해군 때에는 交河로의 遷都論이 제기되었다. 1612년(광해군 4)에 術官 李懿信이 한양의 旺氣가 쇠하였으니 吉地인 交河로 천도하자는 상소를 올렸다. 광해군은 “교하는 江華를 앞에 마주하고 있고 형세가 심히 기이하다. 禿城山城의 예에 따라 성을 쌓고 궁을 짓고는 때때로 순행하고 싶다”고 하면서 비밀히 비변사에 傳敎하여 交河 지역을 살피고 형세를 그려오게 하였다.⁹⁵⁾ 그러나 승정원이나 대신들은 交河 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즉 交하는 항구 입구에 끼어 있지만 배후에 도시를 에워싸고 보호할 수 있는 高山峻嶺이 없을 뿐 아니라 측면으로 도시를 擁衛하는 하천이 없는 하류의 濕地에 불과하다는 약점이 지적되었다.⁹⁶⁾ 게다가 交하는 유서 깊은 都會가 아니라 일개 작은 縣인데 浦口에 치우쳐 있어 城을 쌓고 府署를 만들기에는 결코 適所가 아니라는 것이다.⁹⁷⁾ 그 뿐 아니라 인심이 흉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⁹⁸⁾ 때문에 交河 천도 건의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交河천도론은 파주 지역이 지닌 정치·지리적인 비중이 지대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실례라고 하겠다. 또 파주 지역이 새로운 국토의 중심지로서 주목 받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참고로 허균은 김제남과 모의하여 수도를 交河로 옮기자고 주장하였는데, 천도에 따른 인심의 소란을 틈타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고 한다.⁹⁹⁾ 그 후에도 파주 지역의 행정 구역은 降登이 거듭되었다.

이러한 파주 지역의 경제적 비중 가운데 하나가 품질

좋은 銀의 산출이었다. 파주 읍내 뿐 아니라 交河에서도 銀이 산출되었다.¹⁰⁰⁾

9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p.350.

95) 『光海君日記』 5년 1월 3일.

96) 『光海君日記』 5년 1월 6일.

97) 『光海君日記』 5년 2월 23일.

98) 『光海君日記』 4년 9월 14일.

99) 『光海君日記』 9년 12월 24일.

100) 『燃藜室記述』 별집, 권 11, 政教典故 條.

6. 근대

1894년 갑오경장의 단행으로 지방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이후 뒷따랐다. 1895년(고종 32)에 칙령 제 101호에 따라 종전의 8道制가 폐지되고 전국을 府·牧·郡·縣을 폐합하여 전국을 23府 336郡으로 개편하였다.¹⁰¹⁾ 이에 따라 파주목이 한성부 파주군이 되었고, 적성현과 장단현은 군으로 승격되었고, 교하군은 파주군에 예속되었다가 곧 복구되었다. 이듬해인 1896년에는 23府制를 폐지하고 13道가 설치되었던 바, 파주는 경기도 관할에 속하였다.

일제의 강점 직후인 1912년에 파주 지역은 파주군·교하군·장단군·적성군과 같은 4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런데 1914년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적성군은 연천군에 흡수되었고, 교하군 전역이 파주군에 폐합되었다. 그리고 인근의 양주군·고양군·적성군의 일부가 파주군에 흡수되었다. 그 결과 파주군은 총 11면 88리의 행정 구역으로 조정되었다. 1917년에는 파주군의 행정 구역은 11면 84리동으로 조정되었고, 군 소재지도 임진면 문산리로 옮겨졌다.¹⁰²⁾

101) 『舊韓國官報』 開國 504년 5월 28일, pp.795~808

102) 파주군, 앞의 책, pp.22~27.

7. 현대

1945년 해방 후 위도 38선을 경계로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됨에 따라 연천군 관내의 적성면과 남면이 파주군에 흡수되었다. 남면은 1946년에 양주군에 편입되었다. 1963년에는 적성면 관내의 눌목리 및 삼화리가 연천군 전곡리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장단군 군내면에 속했던 백연리를 비롯한 일부 리가 파주군 임진면에 편입되었다. 1972년에는 장단군의 장단면·군내면·진서면·진동면이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적성면 장파리가 파평면에, 아동면이 금촌읍으로, 임진면이 문산읍으로 승격되고, 월릉면 내포리가 문산읍에 편입되어 2읍 9면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83년에는 주내읍이 파주읍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영장리가 파주군 광탄면에 편입되었다. 그 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지만 1989년에는 4읍 11면 2출장소 125리의 행정 구역을 가지게 되었다.¹⁰³⁾ 파주는 1996년 3월 1일 부로 市로 승격되었다. 그 관하에는 3읍·11面·2洞·258里·25統이 속해 있다. 여기서 3읍은 문산읍·파주읍·법원읍을 가리킨다.

해방과 더불어 남북 분단의 경계선이 38도선으로 확정되면서 임진강 유역의 지리적 중요성은 다시금 부각되었다. 삼국시대에 이 지역이 삼국간의 국경이 되어 이 지

역을 둘러싼 攻防이 빈번하였던 것과 비견할만하다. 특히 임진강 하류는 공격하는 측에는 천연의 장애물이 되지만 방어하는 측에는 일단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비하여 중·상류 지역은 渡河 및 渡涉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방어하는 측에서는 이를 고려한 방어 계획을 세워야만 하였다.¹⁰⁴⁾

임진강 유역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칠중성을 중심으로 한 적성 전투였다. 중공군의 공격을 받은 영국군의 1개 대대가 거의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는 혈전을 치르면서 중공군의 공세를 3일간 지연시켜 반격작전을 취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도 서울이 재점령당하는 비극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었다. 이는 강의 연안에 전초기지를 구축하고, 후방에는 군사적 거점에 해당하는 보다 큰 규모의 산성을 축조하여 깊은 중심과 상호 지원 가능한 방어체제를 운용하고 있었던 전통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다.¹⁰⁵⁾

103) 파주군, 앞의 책, pp.27~28.

104) 육군사관학교, 『한국전쟁사』, 1987, pp 215~220.

105)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앞의 논문, p.326.

시대	지 역	교 하	파 평	파 주	적 성	장 단
조	1415년 (태종 15)	원평도호부로 승격됨				
	1418년 (태종 18)	원평군에서 분리 됨	원평군으로 강등되었다가 원평도호 부로 복구됨			
	1419년 (세종 1)					장단현이 됨
	1435년 (세종 17)	원평도호부에 속 함				원평도호부에 속함
	1456년 (세조 2)					임진현에 폐 합됨
	1458년 (세조 4)					장단현으로 복구됨
	1459년 (세조 5)		坡州牧으로 승격됨			장단군으로 승격됨
	1469년 (예종 1)					장단도호부가 됨
	1504년 (연산군 10)		혁파되어 행정상 공백지대가 됨			
	1506년 (중종 1)		파주목으로 환원됨			
	1636년 (인조 14)					長陵 소재의 1면이 파주에 이속됨
	1673년 (현종 14)				군이 남한성에서 총융청으로 소속 이 바뀜	
	1687년 (숙종 13)	파주목에 폐합됨				
	1691년 (숙종 17)	교하현으로 복구 됨				
선	1731년 (영조 7)	교하군으로 승격 됨				
	1755년 (영조 31)		파주목사가 방어사가 되고, 防營이 장단에서 옮겨 음			獨鎭이 됨
	1764년 (영조 40)	군이 파주에 속함			군이 파주에 속함	
	1840년 (헌종 6)					장단현으로 강등됨
	1849년 (헌종 15)					장단군으로 복구됨
	1895년 (고종 32)	파주군에 속함	한성부 소속이 됨		적성군이 됨	장단군이 됨
	1896년 (고종 33)	교하군으로 복구 됨	경기도 소속이 됨			

시대	지 역	교 하	파 평	파 주	적 성	장 단
근 대	1914년	파주군에 폐합됨			연천군 적성면이 됨	
	1934년	청석면과 와석면이 합쳐 교하면이 됨				
현 대	1945년				파주군에 편입	장단면 · 군내 면 · 진서면 · 진동면이 파 주군에 편입
	1972년					
	1987년	파주군(3읍 12면 2출장소 124리)				
	1989년	파주군(4읍 11면 2출장소 125리)				
	1996년	파주시로 승격(3읍 11면 258리 2동 25행정통)				